東亞日報
夕刊
三月廿八日(火)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電話代表番號 光化門 一九〇〇

社說

獨裁와 非常時

獨裁는어데로가는가

一

政權을 掌中에 부은 獨逸의 「나치스」는 그 當然한 順序대로 全獨逸에 亘한 實質的 獨裁政治의 實現을 期하고잇다。그러하야 實力行動에 對한 法律的 保障을 얻기爲하야

一、向後四個年 在任期間中、또는 來一千九百三十七年三月三十一日까지 政府에 獨裁的 權限을 附與할。

一、設令 憲法에 抵觸하더라도 모든 法律을 公布할수잇는 權限을 附與할。

一、右와 如한 法律의 制定과 모든 外國과의 條約締結에 關하야 國會와 聯邦參議院의 모든 權限을 解除하라。

는 政府信任法案을 國會에 提出하야 國會는 지난廿三日 壓倒的 大多數로 이를 通過하얏스며 따라서 大統領의 署名가 잇어 二十四日부터 卽日實施하기로 되엇다。이에 이르러 全獨逸은 「나치스」의 完全한 獨裁治下에 들게되엇다。

二

徹底한 獨裁政治에 先鞭을 든 伊太利의 存在만으로도 不安을 느끼든 歐洲는 이제 다시 獨逸의 獨裁化에 加一層 重壓을 느끼게 되엇으나 그것의 端的 表示는 最近問題되어잇는 四國協商案에 對한 英佛의 焦燥가 說明하고도 남음이 잇다。世所謂 五大强國의 두 군데가 이제 完全한 獨裁의 實現을 보앗거니와 이 뿐만아니라 擧國內閣、協力內閣도 一黨獨裁와 그 距離가 멀지 않아 잇는바 殘餘의 三國도 濃淡의 差異는 잇을지언정 이 獨裁的 雰圍氣에 浸潤되지 않음이 잇다고 할 것이다。方向은 다르지마는 露西亞도 共產黨의 一黨獨裁오 中國도 國民黨의 一黨獨裁다。土耳其、葡萄牙도 獨裁를 實施한지 오래엇으며 波蘭이나 「네오알」「모로코」「아비시니아」等 專制國도 獨裁形態의 一種이니、이러하야 世界는 바야흐로 獨裁政治의 行潮에 휩쓸리고 잇다。經濟的 危機、政治的 危機를 傳하는 世界大勢는 지금 國家主義、强力主義의 獨裁政治로 말미암아 急角度의 變化를 보이고 잇다。

三

獨裁政治란 반드시 近代的 産物이 아니다。멀리 古代로 올라가서 希臘이나 羅馬에도 獨裁官이란 名實相副한 獨裁政治가 잇섯든 것이다。未開時代의 酋長으로부터 神政政治、專制君主政治도 獨裁에 不外하며 貴族政治、寡頭政治도 獨裁形態의 範疇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그러나 近代的 獨裁는 그것이 近代的 産物인 資本獨裁、金融獨裁와 表裡를 지은 點에서 過去와 다른 特質을 가지오며、代議政治의 腐敗、議會主義의 無氣力을 胎盤으로 한 點에서도 過去와 다른 色彩를 가진 것이다。政治의 權力이 特權階級으로부터 民衆에와 過程을 밟은 過去의 모든 努力은 十九世紀以來로 議會主義의 黃金時代를 演出하야 今日에 이르렀다。그러나 이와 同時에 自體의 內在的 矛盾은 畢竟今日에 이르러 破綻의 具現을 보게 되엇으니 議會主義의 吊鐘은 同時에 獨裁主義의 信號가 되어버린 것이다。

四

獨裁政治가 發生되는 原因과 執權者의 强力的 獨裁가 要請되는 目的은 그 時代와 그 國情을 따라 다른것이니 이것은 古代나 近代나 現在나 多種多樣이리니와 古今을 通하야 다름이 없다。一見한 歸結은 究竟 「非常」으로 或은 一時的으로 局部的이나 方今 世界를 風靡하는 獨裁의 必要는 非常事變을 前提로 한 一點에 要約할수가 잇스니 今次 米國의 大統領의 時局에 前提로 한 非常時權을 要求한것이나、或은 內部的으로 危險한 改革 金融恐慌으로 財政에 對한 것은 或은 外部的으로 戰爭準備나 戰後의 經營等으로 온것은 好個의 例라 할것이다。一九二六年 佛國의 財政獨裁가 그것이오 事業의 必要로 생긴 獨裁의 出現을 보게 되엇던 것이다。獨裁는 어디로 가느냐? 獨裁는 生死起滅의 必然的 軌道를 밟을것이다。非常時로 생긴 獨裁라、그러므로 그 出生의 任務를 着實히 다하려니와、非常時의 除去와 同時에 解消될 것도 當然한 運命일 것이다。뿐만아니라 矛盾의 增大와 한가지로 議會主義 自身이 自己淸算을 할수 밖에 없는 것처럼 보다 矛盾의 因子를 多分 가진 獨裁는 그 一分一寸도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먼저陣容整備圖謀
極東第一主義로
國際協調主義依然持續
脫退後의外交政策

【東京二十八日發電通】聯盟脫退後의 日本外交政策은 極東第一主義로써 나아갈 것이나 그러나 國際協調主義를 放棄하는 것은 아니며 滿洲國의 發達을 援助하야 中國民의 反省을 促하는同時에 米佛露에 對하야는 個別的 協調外交政策을 取하야 日中紛爭의 結實한 事態에 對하야는 그 事情의 理解를 運하야 外 極東에 잇서의 日本의 指導的 地位及 日本에 對한 好意的 協力이 結局 極東의 平和를 確保하는 所以임을 根本的으로 理解케할 方策을 取하기로 決定하엿스며 內田外相은 먼저 實行에 當하야 外務省人心의 一新을 圖할 必要가 잇다고 認하는 바 英佛 大公使及 本省幹部의 異動을 行하야 外務省의 更新을 圖할 必要가 잇나고 認하는 外 어 이와 세는 細部의 中입으로 漸次 相當한 更迭이 斷行될것으로 豫期되게 되엇는데 異動의 風說에 오른 사람은 如左하나

一、勇退를 바라는 사람
駐米大使 出淵勝次
駐佛同 長岡春一
駐伊同 吉田伊三郞
駐土同 有吉明
駐中公使 松田道一
條約局長 栗山茂
駐白大使 佐藤尙武
外務次官 有田八郎
聯盟事務次長 杉村陽太郎
前駐中公使 重光葵
日本事務局長 澤田節藏
日本事務局次長 伊藤述史

一、榮轉할사람들
栗山茂 前佛國大使館參事官
長岡春一 그리고 經濟外交를 擴充키爲하야 南米、南洋及近東及 阿弗利加에서 相當히 多數한 總領事가 增加更迭되어 該數月內에 內田外交의 全陣容의 整備를 보게될 것으로 期待된다

【聯合東京二十七日發】政府는 二十七日 聯盟脫退 通告를 發하야 마치 獨自的 外交에 基하야 聯盟에 依하야 貫徹치 못한 何等의 趣旨에 對한 態度를 取하라는 것이나 따라 軍縮行動은 阿片 其他 諸會議를 비롯하야 非聯盟國에는 何等變化는 업다 하며 强硬態度로써 國際外交에 復歸하기로 되었는데 聯盟을 脫退하드라도 日本方針이 國際協調主義를 排斥하는 것이 아니며 自主外交에 依하야 世界平和에는 進하야 眞摯히 參如하는것은 勿論이다

◇海外消息 露國營農場突擊隊大會 露國營農場의突擊隊의突擊隊員가 各地으로부터 모히여 그 成功한 成果를 報告하는 大會를 擧行 (三月二十五日 莫斯科에서)

今二十八日午後
諮問委員會開會
對日回答起草豫測

【제네바廿七日發聯合】二十八日午後五時三十分(日本時間二十九日午前一時三十分)開會하기로 決定하얏다

【제네바廿七日發電通】日中紛爭에 關한 諮問委員會는 二十八日午後 日本政府에서온 正式脫退通告를 協議하기爲하야 會合하기로 되엇는데 同委員會는 對日回答을 起草하기로 되어 注目되는 바이다

通告를接受한
事務總長의回答
제네바에서 名文章이라 好評

聯盟國에도卽時通達

【제네바廿七日發電通】聯盟事務局은 廿七日午後二時(日本時間廿八日午前四時二十分)에 至하야 겨우事務局에 日本政府의 聯盟脫退通告書를 接受하엿다 日本政府에서온 聯盟脫退通告書를 接受한드라몬드事務總長은 直時 受領하얏다는 電報로 發表하얏다 그리고 드러몬드事務總長은 日本政府에 回答을 보냇는데 그 回答全文은 內田外相에게 하야 通告書의 英文은 매우 名文이라고 一般에 好評이엇다 日本外相의 電報를 受領하얏다는 것과 聯盟事務總長의 同時에 通告書의 複寫를 各聯盟國에 通達하는 手續을 取하얏다

【聯合제네바廿七日發】日本政府의 聯盟脫退에 對하야 聯盟事務總長은 日本의 意思에 對하야 聯盟規約第一條第三項의 規定에 依하야 卽時聯盟各國에 通告하는同時에 公表하얏슴으로 午後八時 各國에 通告하얏다

葡萄牙領에
野心全無
伊首相聲明

【聯合로마廿七日發】最近伊太利首相 무쏘리니氏가 南阿프리카의 葡萄牙領土(앙골라)를 노리고잇다는 報道가 傳하게되어 葡萄牙側은 不安을 느끼엇든 바 伊太利측으로서는 이를 否認하는 聲明을 하얏다

軍權政權一切를
蔣介石의獨裁로
汪精衛도將介石과合作握約

國防委員會擴大會議

【南京廿七日發電通】廿七日의 中央政治會議에서는 國防委員會에 政權軍權一切를 一人의 手中에 統一하기를 決定하고 汪精衛도 國家多事의 際에 蔣介石에게 獨裁를 許하기를 承認하고 蔣介石、宋子文、孔祥熙、陳公博、顧孟餘 等과 合作하야 對日方針에 出席하얏다 汪은 會議後 말하되 軍政統一이 되어 中央要人等이 一致에 對하야 一切에 對하야는 對日方針에 成功할 것이다

政友會新陣容

【東京廿八日發電通】政友會는 二十八日午後二時 本部에 議員總會를 開하야 幹部의 改選을 行하고 新陣容을 整備하기로 되엇는데 政局의 動向을 압두고 鈴木總裁도 그 人選에 對하야 愼重히 考慮한 結果 黨中樞機關인 幹事長은 山口義一氏를 重任케하고 筆頭總務에는 島田俊雄氏를 事實上 筆頭總務의 요직에 擧하고 松野鶴平氏도 補佐役으로서 總務에 列하기로 決定하얏다 그리고 政務調査會長은 滿洲方面一帶를 比較的 簡單히 리려는 指名할 것이다

政局暫時現狀維持?
政黨政治는時機尙早로보아

政府의留任決議로
루스벨트大統領과 松岡氏卅一日會見

【東京二十八日發電通】第六十四議會 終了後 齋藤內閣은 그 去就에 對하야 各方面에서 注目하고 있는바 高橋藏相、山本內相도 國策遂行이 終了後 前內閣 首相의 辭任問題로부터 現內閣 諸般의 事情과 本問題에 對하야 會見하고 協議한 結果 首相으로서는 非常時局에 直面하야 留任하야 難局에 處할 決意를 가진다 勿論 首相도 議會政治를 認定하는 以上 政黨政治의 常道復歸에 無視치 못하나 政民의 信賴를 增大케하지 안으면 안된다고 稱하야 內閣은 今後 時局에 對하야 當分間 負擔키로 하얏다

辭職치안코
當分時局擔當
臨時閣議後首相談

【東京廿七日發電通】聯盟脫退에 關한 閣議後 齋藤首相은 時局問題에 對하야 如左히 말한다 今後는 外交에 對하야는 世界平和와 人類幸福을 基調로 하고 其實 根本方針에는 何等變化는 업다 外務省으로서는 勿論이나 未定된 問題도 有하다 이 時機에 際하야 非常時局에 當할 決心을 가지고 잇다

【워싱톤廿七日發電通】國務省은 松岡代表와의 會見時間을 如左히 發表하얏다 卅一日正午 루스벨트大統領과 會見後 國務長官과 會見하기로 決定하얏다

軍事國防問題로
文部省이國家總動
二十七日午後省議協議結果
學校教育團體에訓令

【聯合東京廿八日發】日本의 文部省은 教育部에 對하야 聯盟脫退에 伴하야 國民의 覺悟를 促할 必要가 잇다하야 廿七日午後省議를 開하고 協議한 結果 各學校教育團體에 對하야 今後의 覺悟에 對하야 近近訓令을 發하기로 決定하얏다 그리고 文部省社會教育局에서는 此際 非常時國民運動을 起하기로 決定하고 靑年團 婦人會 其他教育團體에 通牒을 發하야 陸海軍兩省과도 聯絡하야 軍事國防에 關하야 國家總動員을 行하기로 되엇다

西伯利亞와滿洲等을
氣候溫和한樂土化!
間宮海峽埋立、寒流를沮止하야
露技師가政府에建議

【聯合東京發】滿洲開發上의 氣候溫和의 樂土로할 計劃이 아르되에 모氏에 依하야 露國政府에 提議되엿다 間宮海峽은 黑龍江에서 吐出하는 土砂로 因하야 閉塞되어 幅三十里도 아니오 交通이 不便도 아니오 資金의 不足도 아니라 五十度가 되어 모든 그것이오 오호츠크에서 間宮海峽을 通過하야 日本海로 入하는 寒流의 影響이다 그러하야 間宮海峽을 埋立하면 이 寒流를 막아 그 結果 西伯利亞 及 滿洲는 溫和하게 될 것이라 한다

辭令

任道立醫院醫官(七等) 增田秋男
朝鮮總督府遞信局副事務官 淺利義勇
任朝鮮鐵道局副參事(七等) 高木嘉市
鐵道局書記 秋雄
依願免本官
【東京二十四日發電通】
任道理事官(七等) 足立安政
任道警視(七等) 張基晃
任郡守(六等) 告津五郞
任郡守(七等) 吳成甲
任郡守(八等) 林業試驗場技師
敍高等官(七等) 金相英
遞信副事務官 淺利義勇
依願免本官
【東京二十五日發電通】郡屬兼專賣局屬 堀內修三
總督府技師 本間德雄
高等普通學校敎諭(五等) 鈴木大吉
公立女學校敎諭 石澤健三
公立中學校敎諭 水町寶治
道警視 足立安成
道理事官 堀內周

橫說竪說

▼栗、棉、羊、金 —— 이것으로 朝鮮農村을 更生시키자는 字垣政策에 ▼棉作不採算論이 떠서 들리고 日本의 生絲모양으로 關稅障壁을 높이면? ▼關稅收入이고、棉作獎勵되고、紡織業獎勵되고 一石三鳥가 아닐가 ▼滿洲粟收入稅障壁을 세우는데에 綿絲布關稅를 세우는다면 未知其二之嘆이

○山警察署가 留置嫌疑者들의 沐浴과 運動을 許하야 一躍文化警察署가 되엇다 ▼반머리、모기장、販賣販賣까지하야 至當 ▼아직 有罪無罪判定안된 未決囚에게 苦痛을 주음은 不可。

若林金次郎商店 大阪市南區松屋町筋末吉橋北入西側 玩具各種卸問屋 電話東四四〇五番 (本紙名을必히記入하시요)

教育玩具 流行玩具 製造卸

端切諸綿布卸 (소매사절) 見本帖、綿布、絹布、毛糸物 大阪市南區 國津村合資會社 振替大阪一三八三三番

春物 羅紗洋服 製品揃 大阪市谷町一丁目 石尾仁本店

大阪著名問屋案內

東亞日報購讀請求所 市內中學洞十三番地 張學基運動具店 (電話光二二四二番)

古本 高價買入 敎科書 京城府明治町二丁目 金剛堂書店 電本局三二七番

土金 石金 高價買入 株式會社 京城明治町 京城德力 平壤南門通 平壤出張所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 서울고무工社 電話光一一五九

斯界의王 春メリヤス 破格品豐富 綿布加工品 現金安賣 在庫豐富 破格奉仕 開業相談 株式會社 今井商店 大阪市東區安土町四丁目

木手道具 理髮器具 家庭用金物 洋鐵屋道具 大阪市南區安堂寺橋通一丁目 正壹及物本舖

化粧品卸商 クラブ化粧料 ブリミヤ化粧料 各種優良化粧品雜貨問屋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二丁目 松田貞商店

ユニオン印 靴クリーム 大阪相互通信社

滿洲粟關稅引上問題 現在의 十割로 增率?

農林省側은 二十割說을 主張

細農層에 一大打擊

만주속(滿洲粟)수입관세증징 업는지경에 싸진세금을 안올려 온이미 김정적사실로 지금넘어 계할수는업스나 할수잇스면 인 잇는문제는 오직얼마나 올려게 상률을 적게하려는방침으로 석 되는가하는것뿐이다

총독부에서는 만주속이조선 세농이하 다수의 상식물로이수 입관세의 인상은 빈농에게 중 주는것이라는것을 잘알고잇습 오로조선이일본의자력적통제의 대상적회생물로 올려지안흘수 아 방금농림성과 척무성에잇는 총(石塚)과사를 동경에파견하 데 농림성에서는 현재一석의관 세一원 十전을 二十割을올려 三원六十전으로 올려어 쌀한섬 원가량의 차이가 생기게하야 좁쌀먹든 농민이 백미를먹게되고 딸하서 만주속의 수입이감소한다는 주장을 강경히하는데 총독부에서는 좁쌀먹는농민과 백미먹는계급이 다름으로 만주속의가격이 약간올른다더라도 세농이 백미를먹게되지안는다고 조선의사정을 가추어반대하는중에잇다하나 대세가 현행관세의 十割인상 一원 十전을 二원四十전)은면치못할세에이다고본다

米穀統制法通過로 朝鮮米增產中止

◇自力統制後一難又來◇

注目되는 事態의 進展

일본의 미곡통제법은 이미국회를통과하야 조선산미의 일본 이출도 총독부에서 자력으로통 제하게되고 그대신 만주좁쌀수 입관세를 올리게되엇다

총독부에서는 대국상으로 보아 조선미 김본이출총독부의 힘으로 자력통제한것을 어느정도의 성공이라고보나 일난거일난래(一難去一難來)로 다시총독부에 큰곤난이 이르러는중이니 이는중앙정부에서 미곡통제의뒤를이어 미곡생산통제안을세우고저 통제의원회를 조직하야 일본과더부터 조선과 대만의 미곡생산을 제한할방침을세우고자하는것이다

미곡생산통제위원회가 어떤계획의 시행을 방법으로 조선산미를 제한할는 지는 아직모르되 농림성과제국선에강제하게될모양인데 농회에서는 이왕부터 처무성과 총독부가 어떤 증식계획의 실시를 강경히반대 하야오든터임으로 이번 산미통제위원회에서는 조선산미 증식 제한하 조 이에 대항할는지 장래가주 목되는바이라고한다

淘汰는 不行 職制는 變更

吉田鐵道局長聲明

길전(吉田) 철도국장은 二十八일정오에 출입기자단과 회견

九門口의 形勢 極度로 重大化

○○隊主力出動

【山海關二十八日發聯合至急報】 구문(九門)방면의 형세는 극도로 중대화하야 일본군○○대주력○○○명은 二十八일 새벽에○○방면에 출동하얏다

增援隊어든 中國軍 爆擊에도 頑强抵抗

【錦州二十七日發承通】 랭구(冷口)전면에잇는손덕과(孫德基)의 제백九려는증원부대를어더천천완강히저항하야일본군영(營)지에의전진을 저지함으로 전도(前島)련대과는 二十七일아침○○비행장을출발하야 주국군의전진 생구북바 五杜미돌의지점 장가지자(長家枝子)의大嶺九十九미돌진지를 폭격하얏는데 주국군의 증원대는 건창영(建昌營)방면으로부터 속속 전선에 집중하야 일본군의공폭당군의협력공격에도 굴하지안코 완강히저항하야 장성一대에서전에보지못하든 대격전이 전개되엇다한다

山海關中陣動搖 日本軍警戒線配置

【奉天 山海關二十七日發】 석문채(石門寨)방면의 정세동요는 산해관정면의 주국진지에 비상한불안공포엇슴으로 대소동을이르키엇다 일본군과가려 각처에포성이 은은히게들리엇슴으로 랑합(狼合)수비대장은 벼마츰 산해관전면에서 대기중인 장갑열차를○○철교부근에 배치하고 동시에 오후七시부터정예를 일즉어와비한경계선에배치하야 엄야경계하고 또국경경비대도 시즘을엄중경계중이라한다

警備力의 關係上 移任安危가 念慮

東亞勸業支配人急遽入城

◇總督府側과 協議

만주사변(滿洲事變)이래계속 천으로○가되어가는 재만동포 외피난민에게에이야 조선총독부 와 외무성 기타관계방면에서는 구제방법을 신중히 고려한결과 一시는 피란민의 원지귀환(原地歸還)을 촉처오도하고 피난민에게 원지 귀환의려비와 약간의 구제금과 귀환후의 농사를 공동히야 반경 케저으로 원지귀환을 시키어스나 그후원지의 치안관계로재차 피란치아나하면 아니될 경우에 라 결국원지귀환거은 위험하십 방국은 작년이래 재만조선인의 구제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야 집단부락의건설을 촉진하 야와다 이러한결과 이집단농장 건설의사무처 자업은 동아권업 공사(東亞勸業公司)에서지고우 가만명의 피란민을 집단농장에수 용하고사 총독부, 외무성, 무 어이다

이원의 귀환석에 실계한 관계 (關係)에 약五천여정보의 경지와 남남에는영구(營口)전 대우(田莊臺)에약五천여정보의 수천가경지를 매입하얏다한다 이리하야 이집단농장에 수용되는피란민은 매호에 二정四단보의수전과 가옥을 동권업공사에서 十수년간 년부배상으로양여할터이라한다

이경비문제는 당지의만주국 공안대로는 아심할수업서 드별한경호대를 비치할필요가잇는 내외부성(外務省)은 경비예산 관계로 현지수색 요청해 이경비가 들일수업다하야 결국 이경비마 산문제는 피란민의 농조용에 간관이되고마어 二十八일 오전 九시四十분 경성에 착경한 지배인 입공사 금직지배인 동아공사(東亞公司) 이문제로 총독부외사과를 방문하야 이에 대하야 산은 세번조선총독부에서 지출계가잇는 조선총독부에서 지출

이문제로 二十八일에는 하천(荒川)경구영사(營口領事)도입경하야 총독부측과 절충하는중 이다

烏吉密과 田莊臺에 集團農場地決定

在滿避難同胞三萬五千中 四月까지 萬名收容

만주국 본관계방면과 절충하야 결정 이라한다

일면(一面) 양면(兩面) 「우지미」(烏吉密)에 약五천여정보의 경지와 중동선(中東線)동부선 만에는 약五천여정보의 전장대(田莊臺)에 수천가

超特別列車는 『光』으로 命名

오는 四월一일부터 개정시행 나려든것이라한다

鐵道局 職制 變更

하고 이지음소문이 노파잇는 지체개정과 국원정리기다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가티하얏다

지방사무소의 직제를 넘두 조(四월一일)부터 개정하리라얏스나 스피드·업실행에 천력을기우린관계로 한달가량 늦추어 五월초에 단행할터이다 다밟하자면 부산, 대전, 경성, 평양과 청진다섯곳에 운수사무소와 공무사무소가 각각잇는바 운수사무소를 한곳식되지아니하며 더블리어 원산에두고 이에딸하 경성의구역을 주어 고 또정방사도 十七개월이나 새로 하 칭은 철도사무소라고하며 그 직판중에 공무사무소가 행하는보선사업을 이곳으로 이관하기로되엇다 또공무소의 하든건설사업은 이번을 건설사무소라고 명칭하야 경성한곳 에만두고 각지방의 공무사무소는 이동이나 정리가 엄슬것이며 이에반하야 인원정리는 원칙으로 생길터이나 현업원이라고한다

天然痘依然猖獗 昨週發生四百名

死亡者는 七十七名

창궐하든 천연두는 류행시적 어지마는 아직도 수그러지지 아니 지난주일에도 四백 명이나 새로발생하얏고 사 七十七명이 생겻다 도 별로보면 다음과 갓다

	前週發生	一月以後發生	同上死亡
全北	七	一五	一三
全南		一	
慶北	七	一六五	三〇
慶南	三	二一	三
黃海	七八	三七	六二
平南	一	三	一
平北	九	七七	七
江原		八	
咸南	一	一	
咸北	一	三九	一九
合計	二五六	二五九六	四五二

十年勤續教員 ◇範愚氏表彰

【장호원】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공립보통학교(陰城郡甘谷公立普通學校)에서는 만十년간을하로가티 교편을잡고 아동교육에 진력하다하야 내려오는노범우(盧範愚)선생의근속十주년 기렴식을지난二十三일에동교강당에서성대히거행하엿다고한다

超特急列車 「光」

철도국령차스피드·업에딸 반철도국취의심에서 추첨을 하 금향렬차의 명명을 일반에하야 一등一명의 원은 百과 지 게 공모 아든바 금二十八일에 복금오간 금지몰동리(金山洞里) 라병순(羅炳淳)군이 당선되엇다 이렬차 「光」 「빗」으로 결정하얏다 이렬차는 부산、봉천(奉天)간 간편성 급제 一、제二렬차의 이름 한가지 이름으로 그백명이상 우모총수는 만 천八백 六十이다 八명의 다수에달하야 二十七일 최후의 심사위원회를열고 「光」 (빗)으로 결정한것이다 이응모자는 三백六十六명의 다수임으로 출입기자단과 경과 림회왑에 二十八일 오전十시

▲金剛八七一 ▲隼四八六 ▲鶴九七 ▲不如歸(?)가리三六六 ▲鳩二九 ▲興亞一九一 ▲六九 ▲鵬二五 ▲櫻林二九一 ▲朝日二四 ▲旭二四 ▲白頭山二二 ▲曉一〇

새쓰설中心 亂鬪未遂劇

짝사랑이 원수가 되어

【봄과 사랑의 넌센스】

버쓰걸을 중심으로 사랑의갈등이 엄키어 일대란투극이 개시되려는 지유에 군중과경찰의제지로 미연에 방지된봄날의넌센스 사건의내용은 동경시내모 신문배달 김청용(金正容) (假名)은버스걸고순옥(高順玉)(假名)을 사랑하야 오든중 수차 그의동모모의누이동생을 시켜 애달은사랑을 호소해 보앗스되 늘 거절을 당해섯다

그러자 동일한 수단으로는도저히 뜻을 일우지못할것을새다른 권리김청용은 라오르는질(嫉)을것상못하야 반드라서 습격하지게획하얏스나 이것을 엿아차리고 순옥을 보호하는한모의 四이은 집의게획을 눈방해해서 성공치못하게 하얏는데 김은이 것에 분개하야 복수를외하든중 작二十七일 오후六시경에 시내 교남동 적십자병원아페서 상대방이 대치하야 일대 란투가일어나려든것이라한다

白米六石詐欺

작二十七일 오후령시十분경 시내남대문시장안에서 미곡상을경영하는 손완영(孫完榮)상점에 가서 현저동(峴底洞)백一번지의 호리류경(李留卿)이라는사람이 명함을 내노흔후 사업을 부게에잇는 의의리라고 백미六석과 바다파(鋼路) 두둘 주문하야 가지고 대금은 집에가서 준다한후 지원가지고 본정(本町)一정목十一번지 아페와서 이골목안으로 들어갈것이라고 말한후 집군을 어더가지고 그들에게 지위보내후 돈을 꼿가지고 나올터이니 기다려라하고 행방을 감추더배 렷다

피해자는 약한시간 가량이나 기다려다가 오지 아니함으로 소관본정서에 고발하야 방금범인을수사중에잇다

病夫의 責務를 代行 線路에 殉死한 艾妻

責任感과 夫婦愛의 高貴한 犧牲

昨日京義線의 慘劇

자긔의 남편이 갑사이 경련을 건청거장에 들어가는 천도길목에정거하라는 붉은긔를 들고서 이르켜잇는사이 중요한 직책을 ○하려알지음에 그길목을 나아가 정흥마는 경출을나려고 대신행하다가 렬차에 치어죽은 마를리고장이 김삼석(金三石)이가 흰긔를들엇스나 검출이 엄는나 곳책임감과 부부애의 결정이 바로 그배갑수이 경련이이르키려오지아허 길주단의 좀을나리려 나은 비극一막이 경의선에생겻어 남작못이게되엇슴으로 렬차려천도를 가로질려가다가 흰긔를 들고

사실은 二十七일 오전六시五十분경에 경의선선천(宣川)역 一가 곳단사용변으로 그대로 해김귀녀(金貴女) 차는 十미돌아에서 황단하는녀 허둔기고 그안해김귀녀 남편의 석업을원실 들보고서 사청업시달려오는 자를보고서 급청거를 하려하나 스나 베는이미느저서 드듸어 사하고말엇다 이와가라 병의 남편을 가호하는여가에 그직무 를대신하다가 순직한 조선의 녀자는 모름직이 일반사회에큰 충동을주고잇다

京町小火

二十七일오후九시 부동산경영(京町)五번지 동대문에 드는업자 삼촌따조(三村茶助)방에서 불이이러나 약엽재료를태우고 지화하바 손해는 약三백원이은 실회

今春各學校 合格者

京城帝大豫科

文科A組 (一百八名中、十六名)

洪淳正 俞彰濬 尹鍾大 金○○ 智銘 尹(?)用 李明梁 金○○ 錫 趙東○ 朴英秀 申納(?)○ 黃瑞周 尹喜重 金丑動 李○○ 應李 李滄榮 南聖(?)慎

文科B組 (十二名中、十五名)

○○榮 張(?)相 ○正熙 盧○

理科 (七十一名中、十七名)

聖錫 李根雨 鄭雲甲 朴灝 鍾 金允年 金思燁 李錫源 禹亨佳 鄭洛九 吳泳鎭 裵 潞 李愼(?)晃 宋基相 孔貞浩 方在成 金 永泰 李福應 康國一 朴容 虎 李明綬 金貞洙 朴台錫 李修錫 ○勉 李長源 張丙 基 李鉉範 崔湧因 任文彬

普成專門學校

無試驗檢定에依한 入學試驗合格者

◇法科十一人

金東嘯 中東(?) 李雄世(慶北)金 田種培(?)(培材)金李鎬(培材) 金(?)

(中央) 朴勝吉(仁商) 金容贊 (慶北中) 金在沃(高敞高) 崔東 旭(中央) 金雲聲(中央) 金永柱 (普高)

◇商科四人

金時敎(仁商) 張洪九(中東) 金大千(培材) 林炳東(中東)

京城師範學校

二年制男演習科

韓知淑(咸南) 姜漢甲(忠北) 金 琪鎬(慶南) 金義和(平北) 金麟 駿(江原) 金振翰(京畿) 金準培 (江原) 金善培(忠北) 權五根 (江原) 洪在五(平北) 洪泉 (咸南) 崔庚(?)(咸南) 崔昌淳 (京畿) 崔成益(平北) 司容(?)杜

一年制男演習科 (九十二名中、二十五名)

(慶南) 劉達相(忠南) (京畿) 李南星(黃海) 李洛基 (京畿) 卞聖煥(慶南) 李建煥 (京畿) 申○雲(慶北) 文容植 (慶北) 徐洪錫(江原) 沈正求 金元甲(慶南) 金鐵洙(京畿) 崔 翰培(咸北) 宋大洪(忠南) 趙奉 守(慶北) 趙明鎬(忠南) 白仁賢 (平北) 閔洪基(京畿) 卞光洙 (全北) 李吉洙(平南) 李順周 (京畿) 李在澤(京畿) 李鍾浩 (京畿) 李仁永(京畿) 李延吉 (咸南) 劉載煥(京畿) 李炳俊 (京畿) 林炳渝(京畿) 高衡淳 (黃海)

天氣豫報

晴 一時曇

明日最高 二度六
最低 一度四

技競運動

丁抹體操의 體育講演

廿九日夜開催

中央基督教青年會館에서 行하고잇는 丁抹體操講習會에서는 그講師의 來京을機하야 明二十九日午後八時부터 體育講演及映畵會를 同大講堂에서 열리인데 當夜의順序는다음과갓다

그리고 入場料는 普通卅錢 學生二十錢이다

【講演】 (題)丁抹體操의原則 演士 피을힐데브란드氏
【映畵】 丁抹의生活 二卷 갈스버體操二卷合四千餘尺

春季럭비戰

兩日間의戰績

春季럭비리一그戰의 二十五·六兩日의戰績은다음과 가트며 二十三日의 普專對鐵道戰은 鐵道의棄權으로 普專不戰一勝 하얏다

그리고 鐵道은 今春에選手不足으로 나머지全예임을 棄權하얏다

醫專	24 (21—0 / 3—0) 0	中	
鐵道	13 (二—二 / 二—二)	10	京電
普專	28 (11—5 / 17—0) 5	培材	

朝鮮武道館

新春館員募集

市內嘉會洞一九六番地武道館에서는 今春에館員을 四月一日부터 다음과가티 大募集한다는데 開館時間은

劍道、柔道部 午後五時부터
柔道部 午後六時부터
拳鬪部 午後四時부터

募集人員은 前記各部에 各一百名式이다

虛言이 아닌 藥價百倍返金

一、當選淋藥은 東西洋醫學博士의 洋藥으로된 處方과 皇漢秘方等七百餘通中에서 擇之選之하야 最上第一가는것으로 製造한것이 事實이요

二、이藥의 原料는 朝鮮에 第一가는 皇漢秘方藥과 日本의 第一가는 藥과 獨逸의 第一가는 (○○○商社) 自慢特製品 藥을各各相當한分量을添加製造한 것이 絶對事實임니다

● 右記二大事實을 服用하여보신結果로나 分析하여보신結果로나 藥劑師에 處方을 調査하신結果로나 무슨方法으로던지 以上事實이 秋毫라도 相違됨을立證하시는人이 萬一잇스면 藥價百倍를 返金하기로함니다

● 當選淋藥의內容이 이러하니가 淋疾에서 治療되는 有名製藥中 何國製을 勿論하고 萬病에 服用하는藥보다 絶對的이라고 當選淋藥을 ○○는것입니다

絶對的信用을 엇기爲하야

● 萬一無效하면 藥價를 물너 드리던지

● 完全根治까지 藥을無料로 드리던지

兩端間 당신의要求대로 ○○○○ 書作 계약○○ 여시오니 이藥만은 絶對로安心하시고 注文하시요

藥을注文하실때에 이런 確實한保證書를가업스면 卽時藥을 退送하시요

淋疾에 藥이는 第一되는 理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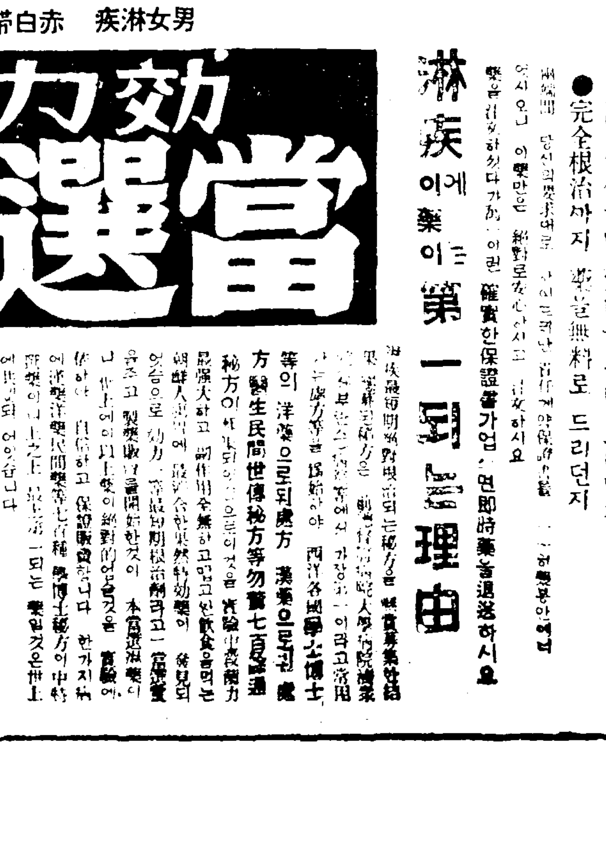
淋疾最初期에 對하야 有名한 秘方藥을 ○○○○ 皇漢秘方은 ○○○○○ 大學病院 ○○○ 某醫學博士의 處方에서 ○○ ○○ 西洋各國醫學士博士等의 洋藥으로된處方 漢藥으로된 處方 醫生民間世傳秘方等勿論七百餘通의 秘方이 ○○○○ 이것을 實驗中에 ○○ 處方 ○○○○ 最强大하고 副作用全無하고 ○○○○ ○○ 朝鮮人體質에 最適合한 ○○○○ 發見되엇슴으로 ○○○○○ 當選淋藥이 ○○ ○○ 世上에 ○○○ ○○ 絶對的 ○○ 自信하고 保證販賣합니다 ○○ 醫學博士의 秘方이 中特別製藥이 世上에 ○○ 되는 것은 世上에 ○○ 어이다

● 當選淋藥本舖에는 世上淋疾患者 全部 모히엿소 ●

淋疾根治는 勿論消化不良까지 全治되엿다는 感謝狀

男女淋疾 赤白帶下 最短期 根治劑

效力一等 當選淋藥



● 智識階級은 淋疾이 걸니면 當選淋藥外의 他藥은 絶對로 쓰지아니함니다

藥을注文할때에 當選淋藥에對한 多少라도 의심이나면 무엇이나 世上일을 다잘알만한 친구에게 널니 問議하여보시고 注文하시요

試用無料 十五錢郵券보내시면 送呈

慢性 全治用 一週分 四圓
急性 全治用 一週分 二圓半

慢性 全治用 十五日分 八圓(?)
急性 全治用 十五日分 六圓

京城 水下町 四、三
平和堂藥品部
電話 光 六三二
振替 京城 九四三

ClibPDF - www.fastio.com

地方論壇

明倫會의 黑幕

眞相을 闡明하라

永興 一記者

儒敎振興의 勃興과 및 儒林의 親睦을 唯一의 目的으로 創立된 永興儒林團體明倫會는 그 모임 自體의 生命을 延長發展코저 創立當初의 첫 事業으로 全郡民에게 所謂鄕校財產造成基金이란 名目下에 多額의 寄附金을 募集하엿든것이다

이것은 距今六年前인 一九二八年의 일이엿섯는데 當時는 아즉 言論不景氣가 襲來하기 前이엿든지라 이 事業에 着手한지 不過幾個月에 거의 大千圓에 達하는 多額의 寄附를 엇기로 되엿다

그後 同會幹部들은 前記 寄附金이 收納되는 대로 會館을 購入하고 土地를 買收하는 一方 所謂鄕校誌를 作成하는 出版事業에까지 着手하야 이미 그 全部를 畢한지도 해가 거듭 하얏다

그러나 同幹部들은 當然히 치러야할 前記 寄附金의 收支決算報告를 各會員의 一致된 要求가 잇슴에도 不拘하고 이에 應치안홈은 勿論 그 誠意조차를 보이지 안홈으로 於是乎 昨冬에 이르러 會員들의 全體的 猜疑를 보게되어 畢竟寄附金淸算委員會를 組織하야 調査를 進行하야 왓섯다는데 이에 對한 그 報告內容에 依하야 보건대 千餘圓에 達하는 不正消耗가 잇다는 것이다

吾人은 이제 이것의 全部가 淸算委員의 報告內容대로 不正消耗인지 아닌지는 未知어니와 그러나 前記 報告에 依하면 幹部中의 한사람으로서 이 것으로서 그 內容의 黑幕이 潛在한것은 勿論 나아가서는 그 金額이 淸算委員의 報告額에 達하리라 하야도 豈不當然한 일이 아닌가 吾人은 차라리 그 幹部의 多數보다도 한거름 나아가 社會人으로서 容認하지 못할 不正事件이 存在하얏슴을 糾彈하라 한다

거듭하거니와 「鄕校慈善事業及敎化事業」의 實施는 當時寄附募集趣旨의 眞目的이 아니다 그들이 이 寄附金을 ... 나타나잇슴은 勿論 鄕校財產을 利用하는 一方 同時에 金錢을 加하는 所謂人物까지를 들어서 이에 對하야 그 態度를 鮮明히 하얏나 勿論이 可惜한바이다 그러나 而今에 그 正當하게 自己네의 私腹을 채우기 爲하야서의 辯護에 不過한 것은 不正當임을 잇지 말라!

이제 上述한 寄附金의 不正消耗에 對하야서는 그 事實이 判明되는대로 司直의 손에 검거되리니와 吾人은 그 것보다도 一步를 前進하야 무엇보다 其責任을 次第하고라도 이번事件의 張本을 지은 同會幹部들의 引責의 責任을 못고저 한다

慘! 兩小兒가 燒死

귀엽게, 외롭게 자라든 兩家獨子와 어머니업는아해

陜川郡下의 悽慘事

【합천】 경남합천군 묘산면관업는 흉을타 권과 김모의 집앞고소를처리하엿슴으로 권과 긔리(陜川郡妙山面館基里)에서 집동(?)사이에서 당황불로 명은 즉시처포하여다가 업줏허는 지난十二일 오전十시에 소아 작난할때 불부른집동이 아이들 二명이 불작난하다가 무참이도 에게 넘어저 어찌수업시 구조 소사되엇다한다 소사한 원인을 불밧지못하고 타죽어다는데 재드른면 묵려에사는 김맹연(金□□)의 한살먹을 아들로 독자(兩家獨子)이요 문재(權文在)의 장남 권재(權□)(三)와 조대는 한살먹을때부터 어머업시 두어린이가 집안에 사람 아이이라한다 고생사리로 자라난

他殺? 自殺?

美人이 溺死

남편은 三명을살인죄로 고소

取調警官도困難中

【광주】 가성봉회로 집을떠나에(金貞愛)(二○)는 지난二十선 젊은녀성이 물에빠저죽엇는일오후七시에 영산강(榮山江)에 그집안사람은 명의남사들에 빠저죽엇다고한다 그런데 친고박장수는 몽군왕상해로하야 살인고소를 제기하앗스나 그원인은알수업나는 과곡면송죽리(谷面松竹里)사는 피합사건이잇다 라주군동강면허정률(許正律) 박천조(朴千祚) 옥곡리(羅州郡洞江面玉谷里)사 박준양(朴俊陽)등세명을 상대는 박장수(朴長水)외안해 김청로하야 살인죄로 라주경찰서에 하얏나

◇寫眞 대구의전승격 부민대축하회 광경과 조선인졸업생일동

郵便所를新設

【해주】 우편동신의(郵便通信의)원활을위하야 시내 남욱정, 북욱정(南旭町, 北旭町)을구역으로하고 우편소를 증설하얏나 사무소는 건축완성이 되기까지는 림시사무소로서 벽성금융조합(碧城金組)뒤에서 보기로

釜山榮町大火

損害八千四百餘圓

原因은失火로判明

【부산】 지난二十七일 오전二시에 부산부영정 정목 손진환(孫□桓)의 집에서 불이나서 부근가옥 二동四호를 전반소시키고 겨우 진화하얏는데 손해는 약 八천 四백원가량 된다하며 원인은고다쓰에 불붓터두고 나갓슴으로 그것이넘우달아서 발화된것이라 한다 ... 하얏다하며 책임사는 김용희(金容熙)씨이다

頭痛의牛、口蹄疫

四日間八十餘頭罹疫

◇累計百二十二頭

【신의주】 농우(農牛)를 엄습하야 농가에 막대한피해를주는 구제역(口蹄疫)은방금 창궐하야 할수업시 주지하게되엿다한다 지난二十三일까지에 려여우 四十二두이엇든것이 四일이지난二十七일까지에는 一백二十二두에 달하엿는데 그발생장소와 두수는다음과갓다

▲義城二十一頭▲朔州四頭▲義城四十二頭▲昌城十一頭▲昌洲三頭

嶺碧間自動車

【벽동】 렴미(嶺美)벽동(碧潼)간자동차는 오는四월一일부터 직통되는 바 정성평양방면통행에는 매우 편리하게되엇다고한다

人事行政痛擊

邑長注意喚起

◇東萊邑豫算會議

【동래】 경남 동래읍(東萊邑)에서는 소화八년도 예산심의회를 지난二十二일부터 二일간 개최하얏나 한다 예산은 작년도보다 一만八천 八백二十九원이 증가라는데 이는 동래읍의다 년현안이든 읍사무소신축비와 소화八년도 세입불예산액은 一천五백원과 농촌지도금 지방개량사업추탁 一이산실비약 제강연회는 ... 원을 게상한外라 이라한다

經濟講演會

洪原署禁止

【홍원】 본보홍원지국 주최로 지난二十六일에 개최하려든경제강연회는 당지경찰서에서 금지하얏다

大邱醫專卒業式日에

府民祝賀會開催

기쁨에 넘치는同校

【대구】 첫학사를내는 대구의 학전문학교의제一회졸업식은 二十五일 오후두시 동교강당에서 거행하얏다

四十九명의 학사를내어 승격 되기전까지는 한명의 취직이 결정되지못하야 자못 적막한느낌이 잇다가 그것이 찾슬뿐이엇다 그런데 금번졸업생은 조선인 十七명인바 그의씨명은 다음과갓다

(無順) 卜相鎬(松高)安命勳(一高)孫丰柱(養正)裴大鉉(晋州)韓南壽(釜中)朴□宇(邱高)徐輔士(邱高)黃鍾性(邱高)孫□錫(松高)金聖碩(邱高)崔德生(邱高)崔炳淑(公高)李龍熙(邱高)權□□(中央)崔泰錫(中央)孫左澤(培材)金康熙(邱高)

가지고 흥험하게되매 취직은문 명이암에와갓다 이날 오후六시부터는 공회 당에서 부민축하매회가 열리어 세월조흔 취직과상에 이하부의 대구에는 오로지 대구의전의것 뿐그것이 찾슬뿐이엇다

가잇고 당당한 학사의 학위를 새의학사는 十七명인바 그의씨 ... 한번승격의 발표 수어섯는데

洛東江下流

住民又陳情

파종기를 압두고 초조해서

慶南道와總督府에

【김해】 경남김해군(金海郡) 낙동강하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로 흐르든 륙수(陸水)가못들어막기때문에 종 라그지류를 들어막기때문에 종 어오으로 하류로부터 바다물이 밀어들어와 동류역에 거주하 는 주민들은 목하식료수조차못 시방아 아니라 하다 얼마 아파 군마(?)... 주민들은 실로중대 한문제라하야 동시를안두한 주민은 ... 량동군(?)막개에서 ... 지시반경에 례안동무 ...

十五歲少年

殺人犯逮捕

【안동】 지난二十一일 오후 안동군 예안면(禮安面)... 十五세소년 귀하다고 ... 한 생각 ... 지고 어서 ... 이라하며 피의는 ... 명에 ... 벗어낫다고 하야 ... 범인은 도그려는 데 ... 생녕(?)그가 아니 ... 라 범인은 안동 곡산주식회 사(安東麯子株式會社)차남김우구(金□九) 장유(長有) 록산(?) 주촌 酒 주(金□□)차남김우구를 이라하며 ... 거(大溪)김해(金海)가라 ... 장사 ... 당하는 주민들은 초조한 ... 해수방지회(海水防止會)... 연다

長篇小說 흙

春園作

靑田畵

(셋재권) (一○○)

정선의 의식은 가끔 분명하엿스나 또 때로는 혼수상태를 게속하엿다。정선은 용이하게 위험상태를 벗어나지아니하엿다。머리를 부듸처 뇌진탕을 이르킨 것과、오른편 무릅의 뼈가 상한것이 아울러 중증인 모양이엇다。정박사는 병을 무릅쓰고 세브란스의 이 박사를 대동하고 나려왓다가 하룻밤을 자고 올라가 버리고 병원에서는 숭과 유월이가 정선을 가호하고 잇엇다。

이박사는 숭을 향하야 뇌진탕은 안정으로 하회를 기다릴수 밧에 업지마는 다리 상한 것은 엑스광선 사진을 박아보아야 뼈 상한 정도를 알겟고、 만일 뼈가 많이 상하얏야 회복할 넘려가 업나고 하면 다리를 무릅 마디 우에서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아니 될는지도 모른다고 말하엿다。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병자를 전동할 수는 없으니 이삼 일간 기다릴수 밧에 업다고 말하엿다。

숭은 날마다 밤을 새엇다。첫서이가 살이 든든한 동아에 숭은 교외 걸녀안은대로 십분이나 이십분씩 졸앗다。

밤이면 정선의 고통은 더하는듯 하엿다。두통과 다리의 아픔을 이기지못하야 정신은 안 나는 소리를 하엿다。이 것이 정선의 입에서 나오는 유일한 소리엿다。숭이 무슨 말을 붙이면 정선은 다만눈을 한 번 떠 보고입을 조금버릴뿐이엇다。정선의 유일한표정은 오직 고통을 못 이기어하는 표정뿐이엇다。

일 주일이 지낫다。서울서 이박사가 나려왓다。정선의 옳은 편 다리는 마츰내 끊어버리기를 결정이 된 것이엇다。

「나는 죽어요!」

하는 것이 정선의 첫말이엇다。그가 처음 입을 열만하게 된 날、입원한지 닷새째 되던 날 정선은 남편을 보고

「나는 죽어요!」

하엿다。

「아니요。아니 죽소。의사도 관찬다는데。마음 턴안히 먹으시오。」

하고 숭은 정선을 위로하엿다。

「나는 죽어요。내가 왜 안 죽엇서。」

「꼭 죽으랴고 기관차 앞에 뛰어들엇는데 내가 왜 안 죽엇서? 기관차도 나를 더럽게 여겨서 차 내 버렷나。」

하고 정선은 울엇다。

「당신이 살아야 세상에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구하신 것이오。아모 것도 아니 하는 생명은 천하지마는 귀하다고 하지 아니햇소。그 한 생명은 한 나라 보다도 ... 린 생각 말고 맘을 편안히 가지고 어서 나으시오。이제는 생명에 위기는 벗어낫다고 의사도 그러는데。」

하고 숭은 가제 조각으로 정선의 눈물을 씻어주엇다。

그 후에도 정선은 정신만 들면 비관하는 소리를 하고는 울엇다。그러할 때마다 숭은 친절하게 위로해 주엇다。

「내가 살아나면 당신은 나를 용서하시려오?」

이런 말도 하게 되엇다。

「벌서 다 용서하엿소。이제는 내가 당신에게서 받을 용서가 잇을 뿐이오。」

이렇게 숭은 대답하엿다。그럴 때에 숭의 맘에 거리낌이 아니나 그 거리낌은 정선에게 대한 긍직한 정에게 눌려버리고 말앗다。

「이렇게 병신이 되고 ... 려가 되고 살면 무엇하오? 신문에 낫지?」

이런 말도 하엿다。아직 죽고 살 것도 판정되지아니한 이때에 병신 되는 것、남이 숭보는 것、신문에 난 것들을 생각하는 여자의 심리가 신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하여서、

「병신이 되기로 무슨 상관이요? 병신도 될려 업지마는、? 신문에 나거나 말거나 남이 숭을 보거나 말거나 그 게 무슨 상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일을 하면 고만 아뇨? 일은 모든 것을 이기오」

하고 위로하엿다。

今春各校入格者

木浦公立商業校

孫鍾吉、丁南洙、金近洙、李仁徹、鄭東燮、崔丰生、金聖會、李智鎬、李海龍、朴南龍、金錫柱、金相奎、李光國、金兆鉉、朴正燁、申南均、李鍾璨、金容七、李香元、金鍾文、李相權、崔坤洙、新鍾大、鄭錫奎、柳根錫、鄭□龍、成章玹、朴□來、金熙洪、姜晟奉、曹錫興、鄭相郁、金溶旭、金柱錫、尹仁洙、金允南、具濟萬、李榮斗、金在衡、高松煥、安鍾順、姜吉秀、韓錫興、金炳秀、金仁默、李鐵山、孫錫友、曹泳恩、曹千奉、李南順

馬山公立商業校

卞大燮、金在明、田龍昊、李英根、李彪永、野際克美、金好權、林勝熙、山下建樹、金南德、朴根培、文渭尙、金元健、具在會、徐演鐵、鄭基哲、李炳珊、崔□□、宋、安冏中、許萬甲、卞宗錫、洪鍾烈、崔理俊、具駿秀、朴元錫、朴之晟、元鍾完、□慶仲、□相鎬、李鍾遠、朴穀明、河永植、崔鍾大、金基永、朴之墉、金容宅、徐相昊、李□燮、高奉乾、金□□、河萬甲、□龍楠、北川元宗、□魚亨鮮、孫丁奎、鄭□洙、高秉性、金仁興、李枚春以上五十名

二萬圓橫領犯

무순서빅행하고온일본인

二十七日檢局送致

【청주】 본제을 대판(大阪)에 取引者에게서 증거금으로 二만 원을 사기횡령하야 가지고 조선으로 도망하여든 총독부에서는 대창고(大倉組)○○와 지현(愛知縣)에 본적을둔 복태(福澤福次)등이무순(撫順)소에서 체포되어 이래엄중한 취조를받고 二十七일 사기횡령죄로 대복주식회사(大福株式會社)에서 청주검사분국에 송국되엇다고 취조중이라는바 그내용이야기는 가정불화로 집을떠나서 재창진(在倉津)이라는동지엽을 지나갈때에 전과 명이발견하고 점문미(?) 어디 혼자서가는것을 괴히로녀 처서 유황한수작을하얏스나 김청에 가조용도 응하지아니하얏 습으로 영산강물에 저너허버린 듯하다고한다 그런데시체를 아즉까지도 발견하지못하엿을뿐외라 증거가 전혀업슴으로 취조하고잇는 경관도 매단히 곤난중에 잇다한다

被告全部에

體刑을求刑

◇판결언도는 래三十一일

全北土木疑獄事件

【전주】 긔보=전북토목의옥사건의 피고대삼학길(大森鶴吉)외十一명의공판은 예정과가터 지난二十五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속행되어 교본(橋本)검사로부터 다음과가티 구형이잇섯는데 판결언도는 오는三十一일이라한다

大森鶴吉懲役二年 渡邊綱藏同十個月 德田芳同八個月 早川太郎同 有村松二同 菜山實大郎同 藤原元一同 橋本清德同 椰林作松同六個月 山邊淸司同 渡邊勇同 森安孫六同(二年間執行猶豫)

四個勞組合同

國境勞組創立

新義州公會堂에서

【신의주】 금년청초부터 합동을권하든 부내四개 로동단체인 부두(埠頭)신부두(新埠頭)하차(荷車)로동(勞働)조합은 그동안 조합간부들의 불면불식으로 노력한 공이잇서 가성조직을 해체하는 동시에 새로이 국경로동조합(國境勞働組合)을 조직하야 二十八일오후七시 부내공회당에서 一반유지를 초청하야 동조합창립식을 거행하리라 고한다

坡州鷄卵出荷

品評會開催

【문산】 파주군축산조합에서는 十一일 계란(鷄卵)출하조합품평회 수상식을거행하고 우량수십인불의 표창까지 겸행한다고한다

海州邑會議

二十五일부터

【해주】 소화八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해주읍회의원회는 지난二十五일부터 일간열기로 되엇다 금년도 예산액은 경상비 림시비를 합하야 총계十四만六천 七백十八원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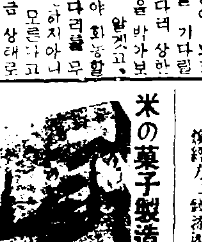
그런데 회의에 잇서서 의원김병규(金秉圭)씨로부터 신읍장의 산하정도(山下正道)씨가 취임 후 단행한 인사행정에 대하야 조선인서기 초급二十五원 일본인서기는 초급七十五원에 채용하야 민불공정한처치를 열거하야 민족적차별대우를 매우론하고 금후읍장의주의를환기한바잇섯다 그리고 주요의안은 다음과갓다한다

一、公□□□作□□의件 二、□□基本財產□□의件 三、基本財產□□處分의件 四、□□賦課規則制定의件 五、□年度歲入出豫算의件 六、水道給水規則制定의件 七、□□度溫泉特別會計歲入出豫算

事務員募集

應募者는 東洋拓殖村六十 ... 經驗者 ... 履歷書持參

米の菓子製造本舖



各種おこし原料一式

京城府水標町四○番地
菓子原料商
電話光化門 一九七番

大阪商會

特價貼藥案內

擇之又擇의絶對責任付

補藥은亦是漢藥으로 洋醫學者도推奬한다

鹿茸大補湯 十全大補湯 六味地黃湯 四六湯 四物湯 雙和湯 八味湯 八珍湯 肥兒湯 水土湯 補中益氣湯

依本方六味丸 依本方八味丸 依本方腎氣丸

代金引換大歡迎

京城府授恩洞 漢藥乾材
都散賣商
補藥專門公司

學生服大都賣

コクラ特製

用 夏 春

各種

原產地直輸入

△裁縫嚴密 △體裁優美 △價格低廉

西朝鮮一手販賣店

白南薰商店

◎鎭南浦碑石里
電話長五四大番

「時勢表請求하시면 即刻送呈합니다」

東亞日報購讀請求所

府內鍾路 丁目 五番地

卜容圭漢藥局

電話光 一九七番

淋疾梅毒 專門

診察 午前九時로午後八時까지(日曜休診)

京城府 郵便局北側

チエ京城醫院

益母草엑기스錠

부인성약

醫學博士 朴昌薰先生 監製

婦人科專門

은은히나오는하은이길음시다 건강한자녀는건강한모체로부터、건강한모체는이모초엑기스錠으로부터

益母草엑기스錠은月經不順、帶下症、子宮病의徹底的治療와產前產後의養生에國際的으로確認된古今唯一의婦人聖藥입니다 또男女不拘하고神經衰弱、冷病、消化不良에特效가잇습니다

主效 냉증、경도부조、월경통 ...

定價 十日分 一圓卅日分 五圓 七十日分 十圓

本舖 大盛堂藥房

代理店 新井藥房

◎데이회투매개시!!

전세계적유명한고급「구롬피아」류성기오백개를돌넌대투매함

리류는모든물가폭등됨을볼서...

고급구롬피아류성기

경편가방식오백개를

쇼매가三十五圓이상의것을

단돈九圓八十전식

주의

國際商工硏究所

大阪市北區安治川三丁目
振替口座大阪四八三○八番

ClibPDF - www.fastio.com

伊太利銀行이 米國에서金撤去

紐育準銀의「이어막」金中에서 八百五十四萬餘弗을

米財界樂觀不許

【聯合紐育二十七日發】伊太利銀行은 二十六日 紐育聯邦準備銀行의「이어 막」金中에서 八百五十四萬六千五百弗을 ㄷ집어내다가 財務省의特許를 어더가지고 伊太利에 向하야 現送하얏다

金輸解禁해도 弗貨高不能

對米爲替弱含이나 反强化의形勢?

米國의 財務長官 우딘氏가 廿六日 金輸出禁止問題에 對하야 [illegible] 特히 金의 六,七兩日 金輸出禁止問題에 對하야 輸出을解禁한다하면 現在이 어맡긴 外國銀行의 數個의 金中 相當히 輸出의 可能性이 있는것이라고 外米은말하나 果然實現하기는 疑問이다 金輸의禁止를 解除하라는 聲明을 發表하는 境遇 弗爲替가 어떠케 될지 一部에는 이解禁을 매우 悲觀하야 弗價는 [illegible] 한가지 惡材料가 될것이라고 보는 모양이나 米國은 一般으로 現在와 大差가 업을것이라고 보는 [illegible] 그것은 米國金의 輸出禁止는 [illegible] 低落할것이라 하는 것이 合理的이라하야도 日本의 [illegible] 英國과 金의 離脫한바잇서는 [illegible] 影響을 보겠지 그것도 比較的 [illegible] 弗價는 [illegible] 强含으로 보는것이 [illegible] 事情에 依하야 變動할것으로 보는 [illegible]

米國財界不良

株式低落

【紐育廿七日發電】紐育株式市場은 二十七日中에 輸入增加와 [illegible] 米國市場의 低落하야 [illegible] 國際小麥市場調로 反落하얏는데 [illegible] 四分三低인 [illegible] 八分一低인 [illegible] 이다

棉花急落

【紐育廿七日發電】米棉市場은 株式急落으로 [illegible] 貨物이 投賣하야 急落하야 止價는 [illegible] 이다

小麥反落

【市俄古廿七日發電】市俄古廿七日의 小麥市價는 反落하야 八分 乃至 [illegible] 低이엇다

滿洲粟의 豫想輸入

京城在庫激增

京城府內倉庫의 三月末現在在庫數量은 九萬一千二百三十六個 [illegible] 百五十三萬四千六百八十三圓으로 前月末보다 三千八百七個 [illegible]

京城商議議員總會 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illegible] 力發電用等의 [illegible] 市場의 [illegible]

世界經濟會議 諸問題協議

米大統領,佛代表

【華盛頓二十七日發電通】「루스벨트」大統領는 佛國大使「크로델르」氏와 「헐」國務長官은 英國大使「린제」氏와 會見하야 世界經濟會議의 諸問題를 協議하얏다

日本의 石炭激減

最低記錄接近

【東京廿七日發電通】石炭鑛業聯合會調査에 依하면 二月中 全國石炭出量은 [illegible] 萬噸으로 [illegible] 昭和元年以來의 最低記錄인 [illegible]

昨年棉作實收 二億五千萬斤

前年보다는 約三割增 不遠에 正式發表

朝鮮內 昨年度 產棉作實收는 [illegible] 總督府農林局에서 [illegible] 約二億五千萬斤 [illegible] 前年度에 比하야 [illegible] 發表되리라한다

鮮銀買入 金價引下

◇八圓九十錢

日本銀行에서 二十七日 부터 金買入價格을 四錢내려서 五圓十五錢으로 하얏음으로 朝鮮銀行에서도 二十八日에 金買入價格을 五錢내려서 八圓九十錢으로 發表하얏다

朝郵社債借換

三菱信託으로

朝鮮郵船은 廿七日 大阪에서 重役會에서 本償還社債 [illegible] 萬圓을 三菱信託으로 借換하얏다

市場用語解說 (十三)

▲逆鞘訂正 [illegible]

▲逆相場 時勢가 [illegible]

▲逆鞘取 期先物이 [illegible]

▲逆注文 時勢가 [illegible]

▲逆乘替 이것은 逆差日歩 [illegible]

▲逆日步 株式短期取引 [illegible]

▲休會 取引所의 立會를 쉬는 [illegible]

▲休會明 休會한날의 그이튼날 [illegible]

▲休日明 이것은 休會가 아니라 日曜日과 가튼 [illegible]

▲休日越 休日을 압두고있다는 말이다 [illegible]

▲休鐘 紡績會社에서 [illegible]

▲舊株 이것은 親株와 가튼것으로 新株에對한 말이다 [illegible]

▲吸收 公債,社債等이 [illegible]

▲義勇買 [illegible]

▲競合 [illegible] 立會中에 [illegible]

▲强弱 時勢가 [illegible]

▲强弱論 時勢의 [illegible]

▲强弱區區 時勢의 [illegible] (中生)

不動產融資 銀行側拒絕

預金利子보다도 비싸다 融通條件도 煩雜

不動產融資는 初年度인 今日 [illegible] 三百萬圓을 大藏省으로부터 [illegible] 銀行에 [illegible] 總督府에서 各銀行의 [illegible]

▲鐵道 [illegible] 交通의 充實

(一)建設 [illegible]

郵局證券購入保管

郵便貯金加入者는 [illegible] 證券의 購入及保管을 [illegible]

偏的見解禁物

大局冷靜考察

低金利의支持

買氣有勢이나 繼續에는疑問

通貨膨脹政策

買尙早의與否

【商通大阪發電】 [illegible]

京城商議

(一)京城商工會議所 [illegible] 規程中改正件

(二)京城商工會議所商工從業員表彰規程制定件

(三)京城府貨物「트」과上屋擴張要望의件

(四)私設鐵道에서代金引換制探用要望의件

(五)朝鮮滿洲聯絡運賃從復旅客運賃割引制度施設要望의件

(六)北朝鮮視察團派遣의件

預金部資產 卅七億萬圓

二月보다二千萬圓增 三月十五日現在

【東京二十七日發電通】大藏省發表에 依하면 三月十五日現在의 預金部資產은 [illegible] 二十八億 [illegible]

濁酒藥酒 京城消費

一年六萬餘石

京城府內의 濁酒及藥酒醸造 [illegible] 三萬六千九百四十五石, 藥酒二萬二千八百四十五石이며 京城府外에서 [illegible] 計六萬六千六百六石인데 [illegible]

滿洲國 經濟政策

四大原則決定

【新京電通】滿洲國의經濟 [illegible] 四大根本原則을 樹立하얏다

今日의市況

◆三月廿八日◆

株式 十錢(單位)		
種別	後場止價	前後場比較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期米(仁川,單位錢)		
限別	後場止價	昨後場比較
先限	[illegible]	[illegible]

正米(三等,單位錢)		
地名	標準時勢	前日比較
京城	[illegible]	不變
仁川	[illegible]	不變

商品(單位十錢)		
品目	後場止價	前後場比較
綿絲(先)	[illegible]	[illegible]
三品FAQ	[illegible]	[illegible]

時勢와市況

株式 高價買警戒

前場續騰

後場反落

小觀◇大觀

大阪株式市況

主要株取組高

朝取短期前場步調

朝取短期後場步調

大阪短期前場步調

大阪短期後場步調

期米 動機待 商狀

前場底强

環境悲觀不安

米自體情勢問題

後場軟保

當限關係注目

▲堂島情報前場

朝取前場賣買

米豆途量

大邱不變

◇南浦保勢

木浦穩健

群山同價

正米 各地의商況

京城不變

仁川不變

釜山不變

株式

朝取短期取引 / 東京短期 / 東株育場 / 大阪長期取引 / 大阪短期取引 / 代引算定日步

	朝取	大阪	東京
當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期米

	朝取	大阪	東京
當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釜山	群山	木浦	鎭南浦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取取組高 / 朝取帳入價格 / 朝取賣買高 / 各地賣買高

商品

各地期米 / 地方米時勢 / 京城正米時勢 / 仁川正米時勢 / 仁川大豆時勢 / ◎大阪綿糸 / 京城綿絲布時勢

大阪棉花 / 人造絹時勢 / ◎橫濱生絲 / ◎大阪砂糖 / ◇硫油中價 / ◇鰛搾粕中價

◎海外砂糖 / ◎對外爲替 / ◎海外經濟 / 滿洲各地商況 / 鎭平銀時勢 / ◎京城手形交換 / ◎朝鮮銀行券 / ◎朝鮮金買入價 / ◎日本銀行券 / ◎日本金利

土石純金金金 金 高價買入 京城南大門通一丁目 (小廣橋側) 合資會社 大陸商會 電話本五二八番

株式 短期現物 朝鮮取引所 證券取引員 黃琦老商店 京城府黃金町 [illegible] 電話本局 [illegible]